월요광장

신발장을 열면서

문 요 한
정신과 전문의

"아휴! 무슨 남자 신발이 여자보다 더 많아! 안 신는 것은 좀 버려!" 신발장을 열어 본 아내가 한 소리를 한다. 얼마 전에 선물 받은 트레킹화 때문에 신발장이 더 빼곡해졌다. 사실 내 신발이 많기는 하다. 운동화, 정장 구두, 끈 없는 로퍼, 등산화, 여러 개의 트레킹 신발 등등. 몇 년 전부터 걷기에 재미가 들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걷기 용도의 신발이 많아졌다.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정신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나는 단연코 '걷기'이다. 돌아보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걸었다. 목적지는 따로 없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주변의 풍경을 두리번거리면서 낯선 동네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왠지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곤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거의 걷지 못했다. 아이들이 어리고, 일에 치이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겼다. 걷기보다는 운전을 했다. 신발장을 열면 구두밖에 없었다. 그렇게 걷기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맛을 붙였다. 집 근처에 흙을 밟으며 걸을 수 있는 길이 긴 것이다. 점점 걷기에 재미가 들려 전국의 걷기 좋은 길은 찾아서 다녀오기도 한다. 마치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새로운 길을 음미하고 오는 것이다.

돌아보면 20대에는 길의 맛을 전혀 몰랐다. 그 시절에는 걷고 싶으면 산을 찾았다. 사실 걷기라기보다는 정상을 밟고 오는 등산이었다. 산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극기'(克己)의 한 방법으로 산에 갔었다. 나 자신이 나태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산을 찾은 것이다. 뭔가 자극을 주고 싶었고, 나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기준은 시간 단축이었다. 지리산이라면 종주하는 데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가 나에게는 중요했다. 그러니 주변의 풍광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냥 발밑만 보고 헉헉거리며 올라갔다. 정상을 향해 오르는 길에 내리막이 나타나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라고!' 내리막길이란 등산의 한 과정이 아니라 정상 정복의 방해물이었다. 마치 애써서 번 돈을 까먹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사달이 벌어졌다. 제대로 준비 없이 지리산 야간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만 것이다. 밤새 헤매다가 거의 탈진하다시피 쓰러졌다. 바위틈에 잠시 눈을 붙이고 가까스로 천왕봉을 거쳐 내려왔다. 하산 길이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내려오는 길에 자꾸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기록 단축이라는 목표를 세워 산에 가지는 않았다. 이후 주변의 풍광을 즐기고 길의 맛을 느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등산보다는 트레킹을 주로 다닌다. 트레킹은 '정상'(頂上)이라는 개념이 없다. 주어진 시간 안에 길 주변의 풍광을 즐길 뿐이다. 그 여유로운 걷기가 좋다. 그러다 한 번씩 가벼운 등산을 간다. 너무 편한 길만 걷다 보면 등산이 그리울 때가 있다. 매콤한 맛, 신 맛, 쓴 맛이 들어가야 음식의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굴곡이 심한 산길이 좋게 느껴질 때가 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뒤에 정상에서 느끼는 탁 트인 개방감! 그것은 일상의 길에서 맛 볼 수 없는 별미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20대의 등산과는 다르다. 오르막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내리막이 나타나더라도 허탈해하지 않는다. 앞만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며 걷는다. 쉬고 싶을 때 쉬고, 걷고 싶을 때 걷는다. 그 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다.

우리의 삶 역시 다양한 길이 있다. 사람들에게 떠밀리듯 걸어야 하는 복잡한 도심의 길도 있고, 정상을 넘어야 하는 험한 등산로 같은 길이 있고, 자연 속의 아름다운 둘레길 같은 여유로운 길도 있다. 꼭 이것이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나눌 필요도 없다. 인생이란 수없이 많은 봉우리와 골짜기 그리고 완만한 능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맥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판단하고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받아들이고 잘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신발을 정리하라는 아내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신발장 문을 닫는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한다. '이 다양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신발이라고!'

법조칼럼

'수탄장'을 걸으며

김 수 지
변호사·장정희법률사무소

양 옆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갈라서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어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소록도병원에서는 전염을 우려하는 한센병 환자의 자녀들을 직원지대에 있는 보육소에 격리하여 생활하게 했고, 병사지대의 부모와는 소록도 내 경계선에서 한 달에 단 한 번 면회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이 길은 소록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자 가장 아픈 길인 '수탄장' 입니다.

한센인들의 울음소리가 소록도를 울렸습니다. 13년 전 어느 변호사들이 그 곡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념 때문도 아니고 전시 상황이어서도 아닌, 국가가 정해놓은 감시선에 의해 철저히 격리된 부모와 자식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새겨들었습니다.

부모 또는 자식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고통, 강제 단종·낙태로 인한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13년 전 일본 변호사들과 한국 변호사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2016년 5월에서야, 일본국이 우리나라 한센인 595명에게 1인당 800만 엔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종·낙태로 인한 피해 배상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저는 이제 갓 2년차가 된 새내기 변호사입니다. 광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서 영광스럽게도 지난 1월 열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권변호단 활동보고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센인 소송 경과와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센인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이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날이었지만, 멀리 일본의 변호사단도 참석했습니다. 일본 소송대리인단의 주축이 됐던 도쿠다 야스유키씨는 백발의 변호사였는데, 아마도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검은 머리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센인 소송을 하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나 긴 시간이 걸렸음을 몸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하지 못 한 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이 2년만 넘어가도 부담스러운데 1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았을까, 감히 가늠해 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변호사는 '말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듣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분노하는 소리, 우는 소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 등 아주 작은 감정의 소리까지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센인 인권 소송에 도움을 준 변호사들이 사실관계에만 집착하고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결코 이번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건을 다뤄보거나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만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 하다가도, 그때 그때 감정에 복받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감정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에 더 마음을 쓰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와 사건의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담도 금방 끝나고 사건을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열정을 갖게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감정의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의 소리로 열정에 불을 지피되, 법정에서는 구구절절한 감정에만 호소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한 논리와 법리를 무기로 싸워야겠지요. 한센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센인들의 고통과 국가 폭력을 정확한 근거자료와 철저한 논리에 의해 입증하지 못했다면 소송에서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한센인들만큼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 사건에 임하지 않았다면 방대하고도 정확한 근거자료와 철저한 논리, 법리 구성은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는 변호사들의 공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들을 끝까지 믿어준 한센인 당사자들, 한센인 인권 신장을 응원하는 시민들, 국립소록도병원 직원 등이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응원을 보내고 관심을 보여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1조를 준수하며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성 보다는 감성이, 사실 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변호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일본변호사단과 한센인권변호단 그리고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끝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한센인 단종·낙태 소송 등이 남아 있으니 한센인 인권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프고 추운 소록도에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기 고

광주문화의 좌표

김 광 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광주시의 자치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구 지역만 살폈을 때 동구가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을 뿐이다. 이를 두고 광주시의 문화행정이 입방아에 올랐다. 이것이 문화도시 광주의 현실이라는 자조 섞인 내용이 주류였다. 과연 광주의 문화수준이 낮을까?

지역 문화실태 조사에 관한 기초 데이터부터 수집했다. 분석 방법과 결과, 그리고 타지역 자료까지 천천히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광주시 문화수준은 수준급이다. 적어도 지역 문화실태 조사 결과로 보면 말이다. 아무리 양보해도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릴 정도의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다.

먼저, 문체부에서 실시한 지역 문화실태 조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사를 수행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인정했지만 이것이 지역의 문화현실을 오롯이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개개 지표가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의지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수준으로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가령,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지표로 설정했는데, 이럴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시·군 단위에 비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광역시는 도시 인프라와 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문화예산의 비율이 낮게 나와 착시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문화수준이 높다고 짐작하는 서울의 강남3구도 지역 문화실태 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 상위 10개 지역에는 시·군 단위가 9개이며 서울시 성동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 단위로 묶어서 비교해 보면 어떨까? 광역시 자치구별로 순위를 정리해보니 광주시의 자치구 4곳이 10위 안에 들었다. 부산 4곳, 그리고 다른 광역시의 자치구가 각각 1곳씩 이름을 올렸다. 특정 광역시의 자치구 중 80%가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지역별로 문화행정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문화행정이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광주시는 어떤 분야에 강했을까? 다른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분야가 문화활동과 문화향유에 대한 지표들이다. 문화예술단체며 문화예술인력의 수, 그리고 시민이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한 가지 상기해야할 점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일 뿐 국가단위나 민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은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리움미술관 등은 지표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결과는 광주시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준다. 지금까지 공공영역에서 해야할 것은 착실히 진행하여 왔으나 민간영역은 미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술가들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금에 의지하지 않고 문화예술 시장에서 시민을 상대로 소통하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 문화행정은 좌표설정을 다시 해야한다.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적절한 배분을 통해 균형 유지를 꾀하면서 민간 자본의 확보와 문화예술시장의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메세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국비는 정해진 법률 등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민간 자본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을 따른다. 그들의 마음에 광주시는 매력이 있어야 하고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스템에 문화행정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받는 수준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이다.

社 說

군사시설 이전, 상생에 찬물 끼얹어서야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해 전남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6년 동안 전남에 총 4조8천299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새로운 일자리도 3만6천297개가 창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의 경우 무안공항 또는 전남 지역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전남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양 시·도의 입장을 반영하듯 이번에는 시·도의회까지 군사시설 이전 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모처럼 상생 분위기를 타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도의회는 최근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에 앞서 광주시의회는 최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이전 반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해 12월14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광주시의 ▲군 공항 ▲무등산 방공포대 ▲31사단 ▲보병학교 평동훈련장 ▲마륵동 탄약고 등 군사시설 5곳을 전남도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양 시·도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민선 6기 들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구도를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전 후보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시설 반대 특위가 꾸려진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 군사시설 이전 사업은 양 시·도뿐 아니라 의회 간 힘겨루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광주시는 미리 협의를 통해 최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전남도 또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탈피해 유연성을 가지고 광주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 이전 문제는 어차피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다.

광주·전남 10명 중 7명이 청년 백수라는데

광주·전남 지역 청년 10명 중 7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실상 백수 신세라는 통계가 나왔다. 광주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지난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광주가 35.0%, 전남이 34.7%로 전국 평균(42.3%)보다 8%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광주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은 16개 시·도에서 전북 다음으로 낮았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해마다 1만 1000명가량의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지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3371명이, 전남에선 7777명이 직장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도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를 35% 이상 뽑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12%에 불과한 상황이라 지역 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이 시행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채용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의무 채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도축 금지령

"우리나라 풍속은 소고기를 으뜸의 맛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으로 여겨 왔다. 따라서 소의 도살 금지령을 내려도 귀담아듣는 이가 아무도 없다." 우암 송시열의 '우암집'에 나오는 내용이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소고기는 음식 중 최고임에 틀림없다. 한국인에게 외식 1순위는 삼겹살과 소고기다. 취향 때문에 삼겹살을 선호하는 이도 있지만 대개는 값이 싸서 돼지고기를 먹는 경우가 많다. 주머니가 넉넉하다면 누구나 소고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출산, 결혼, 생일, 제사 등 중요한 날에는 소고기를 먹어 왔다. 또 체면치레를 하거나 접대 혹은 축하 자리 역시 소고기가 상에 오른다.

우리 민족의 소고기에 대한 갈망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소고기는 가격이 비싸 쉽게 먹을 수도,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는 부의 상징이다. 특히 역사적으로는 노동력 공급원이라는 이유로 소고기 섭취를 금지한 경우가 많아, 본능적으로 소고기를 갈망하는 DNA를 타고난 것인지도 모른다.

소는 농사에 이용되는 탓에 삼국시대부터 도축이 금지될 때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태종이 소 도축금지령을 내렸다. 소가 부족하면 농사짓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소를 잡아먹으면 가뭄이 든다'는 미신이 강했기 때문이란다.

태종 때 오랫동안 큰 가뭄이 들었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백성들이 소를 잡아먹어서 가뭄이 든다는 상소를 올렸다. "백성들에게 소를 잡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소를 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소서. 또한 백성들에게 소고기 먹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 벌을 주옵소서."

하지만 송시열의 글에서 보듯 양반들이 여전히 소고기를 좋아해 도축 금지령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태종의 아들인 세종이 소고기를 무척 좋아했다고 하니, 도축 금지령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소가 살처분되고 있다. 평소 비싸서 먹기 힘든 소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래저래 힘든 것은 서민뿐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